

논단

農心

농심으로 시련 이겨내자 (農心)

■ 성진근 / 충북대학교 교수

9시 10분에 출발해야 할 비행기가 승객들이 모두 좌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더니 30여분이 지난 이후에 기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사정(On Aircraft Service)으로 출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100m 떨어진 다른 출구에 마련된 비행기를 이용해 달라는 것이다.

승객들은 짐을 정리하고 차례로 비행기를 내린 후 지정된 출구를 지나서 또 30여분을 기다린 끝에 새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탑승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행기는 이륙하지 않다가 30여분이 지난 후 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중에 포함된 위험인물이 탑승한 화물을 찾기 위해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비행기가 도착한 시간은 예정보다 4시간이나 늦은 새벽 2시40분이었다.

금년 2월 15일 시카고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유나이티드항공기에서 생긴 일이었다. 기이한 것은 150여명의 승객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항의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승무원의 지시에 묵묵히 따르면서 차분히 앉아서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참을성 있는 자세야말로 오늘날의 미국을 일구어낸 또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한국인의 도전과 개척정신 그리고 인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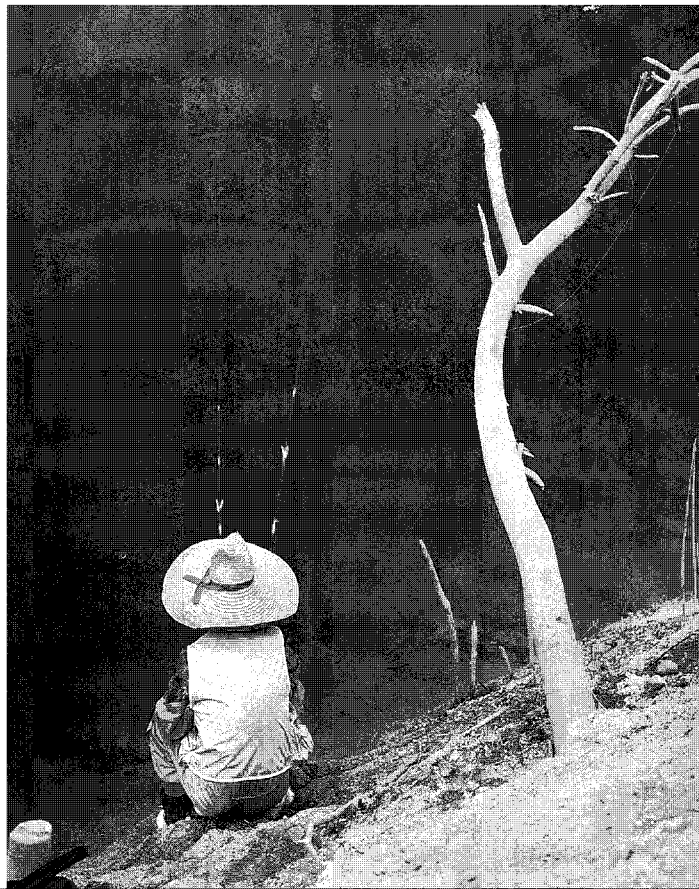
영국과의 독립전쟁으로부터 승리하여 나라를 세운지 200여년 동안 미국국민들은 인디언과 멕시코인들과의 끝없는 전쟁을 통하여 황량한 서부를 개척했다. 남북전쟁을 치루면서 국내의 심각했던 갈등도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세계의 지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50여년에 걸친 소련과의 냉전체제를 끌어오면서 드디어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9.11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루면서 미국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끝없는 미국 승리의 배경으로 흔히 미국인의 개척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개척정신을 뒷받침하는 미국인의 참을성

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30여년 전에 미국인 교수부부와 함께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난데없이 날아든 돌맹이에 승용차 앞 창문이 부서지는 사건이 생겼다. 운전기사와 조수석에 앉았던 나는 차를 세우고 황급히 뛰어내려서 뒷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모든 처리가 끝나서 차에 올라탔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인 교수는 미동도 않은 채로 책을 읽고 있었고, 교수부인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의 도전과 개척정신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국인들의 세계경영 역사는 30여년이 채 안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세계의 140여개 국가에 한국인들이 진출하여 생활터전을 일구고 있다. 미국 청과시장 상권의



‘농업’ 대체 어려운 생명·환경산업, ‘지나친 우려·패배주의 확산’ 안될말 ‘시련’은 극복가능할 만큼만 주는 하나님 선물, 농심(農心)으로 이겨내야

80%가 유태인으로부터 한국인의 손으로 넘어왔다.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최빈국에서 30년 만에 중진국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공배경에는 근면한 우리 국민의 개척정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한국경제의 성공사례를 세계인들은 “한강변의 기적”이라고까지 높게 평가해왔다. 한국인들의 개척정신이야말로 충분히 평가받을 가치가 있는 덕목인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못된 버릇을 키워왔다. 조급함이 그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옆채 불문 끼어들기, 에스컬레이트 뛰어오르기…….

자극만 주면 와글와글 끓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소위 냄비근성이라고까지 지적되는 우리 국민의 조급함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하다.

만약 국내선 비행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4시간이나 늦어졌다면 우리나라 승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미국인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개척정신은 결코 뒤지지 않지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한참 뒤진다. 이 때문에 1등 국민인 미국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3등 국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려움 견디며 스스로 변화해야 승자(勝者)

WTO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상을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우리 농업의 장애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같은 범주이다. 이 때문에 농사일을 평

개치고 도시로 떠나려는 사람들의 숫자도 최근 들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땅값과 인건비가 경쟁상대국들보다 몇배씩이나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을 가지고 따진다 면 우리 농업의 활로는 자유무역체계 하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농업의 장래에 대한 패배주의가 더욱 심각하게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급한 패배주의에 편승해서 우리 농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농업은 간단히 대체할 수가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이기 때문이다. 농업을 포기하고서도 선진국으로 변창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소시장이 개방되면 한우 산업은 망하게 된다는 패배주의가 휩쓴 때가 있었다. 이 때문에 암소마저 잡아먹고 소키우기를 포기하는 성급한 농가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세

계에서 가장 값비싼 소값에도 불구하고 소산업은 여전히 살아남고 있지 않은가? 품질로, 또는 유통으로 차별화해서 국내외의 틈새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선도적 농가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변화된 여건에 맞서서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밝은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민족이나 나라는 모두 노예로 전락했거나 멸망하고 말았다. 개방을 거부한 조선은 한발 앞서 개화한 일본의 식민

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려움을 견디며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던 개인이나 민족만이 승자(勝者)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인 것이다.

깊고 먼 내우외환의 골, 농심으로 극복해야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덕은 은근과 끈기였다. 해양과 대륙세력이 맞부딪치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살면서 반만년동안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해온 것은 온전히 우리 민족의 끈기 때문이었다. 이 끈기를 되살려야만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새 봄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 잡고 다시 나서야 한다. 성급한 패배주의로는 멸망의 길에 이를 뿐이다. 농사철도 되기 전에 미리부터 시작되고 있는 심각한 겨울 가뭄, 그리고 보다 높아질 수입농산물의 개방압력 등 올해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골은 너무나 깊고 멀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된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한 지나친 패배주의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킴으로써 한 단계 높은 강한 체질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련에 농심(農心)으로 맞서자는 것이다. 농심이란 무엇인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어서 열매맺기를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콩 심은 데 콩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우리 모두 농심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힘써 변화해 나가야 한다. **농약정보**

